

# '생애 첫 아시안컵' 이승우 진짜 실력 발휘는 지금부터

나상호 대신 최종명단 발탁...소속팀 출전 시간 늘려가며 경기력 ↑



8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폴리스 오피서스 클럽 스타디움에서 2019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팀 이승우 등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잠시 사라졌던 이승우(베로나)가 돌아왔다. 극적으로 생애 첫 아시안컵 무대를 밟게 된 이승우는 이번 만큼은 팀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깜짝 발탁됐던 이승우는 지난해 9월 벤투호 1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0월 A매치 2연전에도 부름을 받았다. 출전 시간은 4경기 합계 7분에 그쳤지만, 꾸준한 소집은 그를 향한 벤투 감독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입지에 변화가 생긴 것은 11월이다. 벤투 감독은 3기 명단에서 이승우를 제외했다. 소속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대표팀 선발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벤투 감독은 이승우를 뽑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속팀에서 활약이 미미한 점을 들 수 있다. 지금 이승우와 같은 포지션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했다. 시련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서도 빠졌다. 직접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선수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속

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 뿐이었다.

이승우는 12월을 기점으로 되살아났다. 소속팀에서의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벤치를 지키는 날이 많았던 시즌 초반과 달리 어느덧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을 6경기까지 늘렸다.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인 지난달 30일 포지아전에서 미수결이 골까지 신고했다.

묵묵히 기다리던 그에게 러시아 월드컵에 이은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왔다. 대회 개막 하루 전 부상으로 이탈한 나상호(광주) 대신 최종 명단에 발탁된 것이다.

풀고 돌아 아시안컵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내재 발탁자라는 신념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처음부터 벤투 감독의 구상에 있던 것은 아니다.

차선으로 뽑힌 선수이지만 이번 대회가 결승까지 한 달에 가까운 장기 레이스만큼 앞선 지난 가을 A매치들보다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는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U-20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수준급의 연계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한국은 필리핀과의 1차전에서 상대 5백에 크게 고전했다. 촘촘한 수비벽에 공간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이정용(보훤)이 후반에 들어가 분위기를 바꿨듯 수비 위주의 운영을 펼치는 팀들을 상대로 발재간이 좋은 이승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승우는 지난 8일 훈련 전 인터뷰에서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소속팀에서도 자리를 잡고 경기에 나섰다. 꾸준한 모습도 보여줘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선수로서 준비하고 있다. 감독님이 언제 투입할지 모른다.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각오를 다졌다.

어쨌든 벤투 감독은 다시 한 번 이승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이승우가 믿음에 보답할 차례다.

# 손흥민, 첼시전 78분 활약...7연속 공격포인트는 실패

토트넘, 해리 케인 결승골로 1-0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 홉스퍼)이 78분 동안 활약했다. 7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은 실패했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 1차전 첼시와 홈 경기에서 선발 출장, 78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는 이 경기 전까지 6경기서 7골 5도움을 올렸다.

해리 케인과 최진방 부름을 맡은 그는 초반부터 활발하게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3분, 상대 팀 페널티 박스로 돌파하던 과정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페널티킥으로 연결되지

는 않았다. 상대 수비수 안드레스 크리스텐센이 손흥민을 밀착 마크했다. 이 때문에 좁아터진 공간이 쉽게 나지 않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4분 후반에서 남은 패스에 케인이 침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첼시 골키퍼 케와 이리사 발라카에게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얻었고 케인이 직접 차 골망을 갈랐다.

후반 토트넘은 수비 축구를 구사했다. 손흥민도 전반보다 다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공격적인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 결국 후반 33분 에리크 라멜라와 교체됐다.

토트넘은 케인의 결승골을 지켜 1-0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22일 첼시와 4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결승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EPL)와 버턴 앨비언(리그, 3부리그) 경기 승자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그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홈 경기를 치른 뒤,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해 '2019 UAE 아시안컵'에 출전할 예정이다.

# 정현, ASB 클래식서 세계랭킹 360위에 패해 1회전 탈락 수모



승 수확에 실패했다.

결비스를 상대로 1세트 게임 스코어 5-1까지 앞서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진 정현은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1세트 게임 스코어 5-1로 앞서며 기분 좋게 출발한 정현은 내리 6게임을 내주고 5-7로 1세트를 헌납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 정현(23·한국체대·세계랭킹 25위)이 세계랭킹 360위에 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정현은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ASB 클래식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360위 루빈 스테이담(32·뉴질랜드)에게 0-2(5-7 3-6)로 졌다.

지난주 인도 푸네에서 열린 타타 오픈에서 에르네스트 고틀비스(31·라트비아·83위)에게 0-2(6-7(2-7) 2-6)로 패한 정현은 또다시 새해 첫

호를 빼앗긴 정현은 2세트에서 게임 스코어 2-3으로 끌려갔고, 자신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면서 상대에 승기를 내줬다.

6번 시드를 받고 이번 대회에 나선 정현은 단식 최고 세계랭킹이 279위에 불과한 스테이담에 패배하면서 쓸쓸한 뒷맛을 남겼다.

정현은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에 출전한다. 정현은 지난해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진출해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올 시즌 출발은 불안하다.



# 전남드래곤즈 AG 금메달리스트 김건웅 임대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청명)는 미드필드를 보강하기 위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김건웅 선수를 울산으로부터 임대 영입했다.

김건웅 선수는 울산현대고 졸업 후 2016년 포에에 데뷔하여 지난 3시즌 동안 16경기에 출전하였다.

지난 시즌 2경기밖에 소화할 수 없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로 뽑혀 금메달을 따는 등 잠재가 기대되는 유망주이다. 김건웅 선수는 186cm, 81kg으로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표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역할을 하는 등 멀티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팀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양=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